

원전 생태계 유지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

임현승

한국전력공사 부사장



‘하얀 소의 해’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치유와 신뢰’를 상징하는 하얀 소의 기운이 원자력산업계 모든 분들의 가정에 깃들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2020년을 이야기할 때 코로나19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가 유례없는 패닉에 빠진 한 해였으며, 감염병의 세계적 확산은 우리의 일상과 생활양식을 한순간에 바꿔 놓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팬데믹 초기에 어려움이 더욱 컸습니다. 글로벌 경제의 10%가 사라졌다는 의미의 ‘90% 경제’라는 신조어

까지 생겨났을 정도입니다. 한전이 주계약자로 건설 중인 아랍에미레이트(UAE) 원전건설 사업도 어려운 여건이기는 하지만, Team Korea 멤버 모두가 계신 곳에서 묵묵히 노력해주신 덕분에 한 걸음씩 앞으로 걸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지난 2월에는 UAE 원전 1호기의 운영허가를 취득하고 연료장전을 완료하였습니다. 8월에는 계통연결에 성공했고 12월에는 원자로 출력 100% 달성 등 1호기의 성공적인 상업운전으로 가는 의미있는 이정표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헌신해주신 원자력산업계 모든 종사자분

들께 진심어린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새해에도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팬데믹 상황과 더불어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탈탄소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우리정부도 한국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하면서 탈탄소화 정책추진을 밝혔습니다. 한편, 세계 원전 시장에서는 정부의 전폭적 지지와 대규모 재원조달 능력을 앞세운 러시아의 파상적 공세와 중국의 공격적인 마케팅이 우리가 넘어야 할 산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과 원자력이 어떻게 조화롭게 공존해야 할지는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원전산업의 모습을 어떻게 바꿔 놓을지 전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한전은 2021년에도 UAE 원전 1호기의 준공은 물론, 2~4호기의 성공적인 건설업무 수행을 위해서도 총력을 다하겠

습니다. 나아가 제3국 원전시장 공동진출을 위해 UAE와 상호협력을 지속 추진하고,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사업수주를 위한 기반을 더욱 단단히 다지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발주처의 관심사항(Needs)에 부응하는 맞춤형 수주활동을 전개하고, 종합에너지 기업으로서 강점과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수행해온 다양한 해외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수주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인류 최초의 백신이 소에서 나온 우두(牛痘)라고 합니다. 올해가 '하얀 소의 해'인 만큼 팬데믹 상황이 조기에 극복되기를 바랍니다. 원자력산업계의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소망하시는 일들 성취하시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KIIF**